대미투자 1호,
텍사스 가스발전 확정

정부는 9월 22일 국회에 대미투자 추진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총 2,000억 달러 규모로 추진되는 전략투자의 첫 번째 사업입니다.

01

6.4GW급 LNG 가스복합화력발전소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에 약 223억 달러 투입을 추진합니다.

02

수익 배분 한미 5 대 5

합산 수익을 한미가 절반씩 나누며, 한국 측 청산우선권을 확보했습니다. 장기 전력구매계약도 협의 중입니다.

03

2호 후보, 대형 원전·알래스카 LNG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검토 중입니다.

특별법 시행 3개월, 첫 사업 확정

- 2026.03.12 국회, 여야 합의로 「한미 전략투자 특별법」 통과
- 2026.06.09 국무회의, 특별법 시행령안 의결로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 확정
- 2026.06.18 특별법 시행, 재정경제부 한미전략투자공사(KUIC) 출범
- 2026.08.19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방미,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과 프로젝트 논의
- 2026.08.26 산업통상부, 제59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 대미투자 대응계획 범정부 점검
- **2026.09.22 정부, 국회 상임위원회에 1호 사업 확정 보고. 같은 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략투자 논의 진전 환영**

다음 단계
NEXT MILESTONE

2호 사업(대형 원전 또는 알래스카 LNG) 확정과 한미 세부 투자 조건 협의 결과 발표가 예상됩니다.

투자 사업, 어떻게 결정되나

판단 기준
CRITERIA

핵심 원칙은 상업적 합리성입니다. 사업 기간 동안 한국이 받을 수익으로 투자 원금과 이자를 모두 회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정 절차
PROCESS

사업관리위원회가 사업성을 검토하고 운영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이후 국회 보고와 미국 측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2,000억 달러

대미 전략투자 총액
연간 최대 200억 달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후속 협의

원자력·핵잠
연료·농축·재처리

산업
조선 협력

안보
전시작전권 전환

점검 및 모니터링 포인트

01
- 1호 사업·2호 후보 사업의 참여 구조와 조달 요건 파악
- 에너지·발전·조선·원전 분야 사전 준비

02
- 후속 협의 일정과 국회 보고 내용 모니터링
- 사업 구조 변경·추가 프로젝트 확정 여부 확인

03
- 수익 배분·청산우선권·장기 전력구매계약 조건 확인
- 조건 확정 시점에 맞춘 자금 조달·리스크 관리 방안 검토

남은 쟁점

막대한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재정 부담과 투자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9월 22일 국회 비공개 보고의 녹취록 유출 의혹을 두고 여야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입법정책의 변화,
그 흐름을 가장 먼저 읽습니다.

ISSUE TRACKING · POLICY INSIGHT · CUSTOM REPORT

로섹션 입법정책 모니터링 LAWSECTION.AI.KR

본 자료 및 정보는 입법정책 동향 파악을 위한 것으로 공식적인 법률 해석이나 자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